

오늘은 영화 '쿤둔'을 보았습니다.

석가탄신일 기념으로 EBS 에서 방영하더군요.

알고 본 것도 아닌데, TV 를 틀고나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지막 자막까지 보았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나라 티벳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격변과 혼란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처가 다시 태어나도 손 쓸 도리가 없겠구나. 그렇게 많이 타락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성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는데, 인류의 자만은 이 신성을 무시할 정도로 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거창한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함으로써 실체에서 멀어져 갑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그것을 단지 보게 해줄 뿐입니다.

영화 '쿤둔'을 보며, 다시 법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망을 벗지 못하면, 어디가서도 고통이 따르고, 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운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벌써 꽤 오랫동안 이 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변해야 할 때임을 느낍니다.

하늘은 항상 여러가지 형태로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티벳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 년전 우리 조상이 겪었던 이야기이고, 100 년전 우리 조상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티벳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사실은 본래 구분이 없는-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면, 가끔은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약한 내 몸을 끌어내어 삶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에 상관 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임을 떠올린다면,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달라이라마